

(붙임 2)

2017년도 주요업무계획

2017. 1. 9.

문화재청

목 차

I.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	1
II.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	4
III.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	7
1. 문화유산 보존·전승체계 확립	8
2.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	12
3.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	16
IV.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	20
<참고> 일반 현황	21

I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

1. 지난 4년간 주요 정책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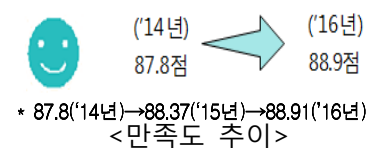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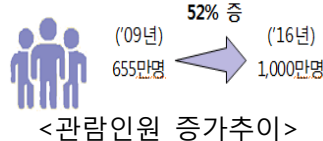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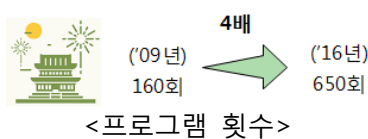
가.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 공감 확산

● 고급 궁궐프로그램의 지속 확대로 문화향유권 확대

- 궁궐 활용프로그램 확충으로 국민 문화 향유권 증대

* 궁중문화축전('15년 24개→'16년 33개), 창덕궁달빛가행('15년 40일→'16년 49일), 아간특별관람('15년 48일→'16년 120일)

-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·운영으로 관람객 1,000만명 돌파



● 다양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으로 인문정신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

- 생생문화재('14년 70개→'16년 88개 사업), 향교·서원 활용사업('14년 38개소→'16년 77개소)

* 관람객 급증 : ('13년) 13만여명 → ('15년) 28만여명 → ('16년) 42만여명

- 문화재야행사업(서울 등 10개 시도 100만여명 관람)으로 문화유산 접촉기회 확대

나.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

● 선진 제도 도입 및 신규종목 발굴 등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

-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개편으로 전승체계 안정화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출범(위원 26명)

*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(아리랑, 제다, 씨름) 등

- 신규종목 확대(5년간 8종목/'16년 135종목), 보유자 등 전승자 확충('11년 4,805명→'16년 6,339명)

● 4대궁·종묘 및 조선왕릉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

- 경복궁 흥복전, 덕수궁 돈덕전,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(고종의 길), 사직단 복원 정비

- 조선왕릉 능제 복원 및 영·영릉(英·寧陵)유적 종합정비 1단계 실시('14년~'16년 125억원)

● 현장·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재난 안전망 고도화

- 9.12.경주 지진 신속 대응·복구, 현장 24시간 관리체계 구축(영상모니터링 시스템 53건, 방재단말기 프로그램 개발, 중요목조 124건·등록 161건 방재설비)

- 돌봄사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위기대응 능력 향상

* 수행단체 다년계약으로 직업 안정성 강화, 문화재 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용확대('15년 85명→'16년 125명)

다.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 참여 확대

-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중장기 발전역량 기반 구축
 - 「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」 및 「무형문화재 보존및진흥기본계획」(17~21)수립
 -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작성지침' 개정(16.4월)
 -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「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」 재조정(약 300건)
- 문화재 관리제도 도입 연구 및 실행을 통한 정책 품질 제고
 - 역사문화환경 '건축행위 처리기준' 및 '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' 연구
 - 역사적 모든 흔적에 중점을 두는 성곽 보존·관리 정책 추진(과도한 정비·복원 지양)
 -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(16.9월)
 - * 공사 규모 및 중요도로 3등급 구분·적용, 능력·가격 등을 종합심사 후 낙찰
- 민간참여 확대 및 교육 다양화로 자발적 문화유산 보호기반 강화
 - 전국 3,518개 민간 참여형 문화재 현장 일상관리 기업 파트너십 문화유산 사회공헌 증가
 - '특특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' 등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맞춤형 영상콘텐츠 개발
 - * '문화재 속 직업이야기' '문화재 돋보기' 등 교육영상 조회수 : 11만여건(16.5월~11월)

라.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

- 세계유산 등재 및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
 - 인류무형유산 “제주해녀문화” 등재(12월,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 결정)
 - * 유네스코 유산 '13년 37건(세계유산 10건, 무형유산 16건, 기록유산 11건)
→ '16년 44건(세계유산 12건, 무형유산 19건, 기록유산 13건)
 - 세계유산협약 위원국(13년~17년) 및 무형유산협약 위원국(14년~18년) 활동
 -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아시아대표 부의장국 선출(16.10월),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개최(17년말 예정) 유치



<제주해녀문화>

- 대내·외 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재 선도국 위상 확보 및 환수 추진
 -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 관리 강화 등 ODA 지원 분야 확대
 - * ('15년) 저개발국 유·무형유산 보존 지원 중심 → ('16년) 초청연수 등 현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
 -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적극적 환수 추진
 - * '옥천사 불화', 美 포틀랜드박물관 '송광사 오불도', '경우궁 인장함' 환수

2. 개선할 점

□ 문화재 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·갈등 대비 미흡

- 기존 문화재 안전 정책이 화재 및 풍수해 방재에 초점이 맞춰져, 지진에 따른 원형복구를 위한 정밀실측자료 구축 등 종합적 재난 대비 미흡, 발굴조사 현장 안전관리 예방대책 미비
- 무형문화재 갈등·경쟁 심화에 대한 보완책 미비
 - ⇒ 지진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지진방재 연구 정밀실측 자료 구축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대책 추진
 - ⇒ 종목 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, 조사심의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전승역량 강화

□ 지역자원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관리 정책 필요

- 지속 관찰·경미보수가 필요한 문화재 일상관리 정착화 필요
- 문화재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지원 강화로 반감을 호감으로 전환
 - ⇒ 돌봄사업의 전문교육 및 법적 지위 강화로 지역문화재 상시관리 정착
 - ⇒ 역사문화환경과 고도지역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, 이미지 찾기 사업의 내실화·지속화

□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브랜드가치 및 지역 확산 미흡

- 한정된 규모의 궁궐활용프로그램으로 인해 활용프로그램 브랜드화에 한계
- 수도권 대비 지역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상대적 저조
 - ⇒ 대표 궁궐활용프로그램 육성 및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대 지원

□ 유네스코유산 등재 확대 및 체계적 보존관리 필요

-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적 등재를 위한 국제적 등재환경변화 대응 미흡
-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미흡
 - ⇒ 유네스코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등재 준비 철저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등 대외협력 강화
 - ⇒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

II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

문화재 보호체계

-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재 지정·분류 체계의 개선방향 마련 필요
- 전승자 고령화 등으로 전승단절 우려
 - 평균연령 (보유자 71.5세, 전수교육조교 62.1세), 70세 이상(보유자 59.5%, 전수교육조교 23.8%)

- 문화재 지정·분류체계 중장기 개선
- 전승자 순환 및 예우 강화

문화재 안전관리

- 문화재 재난 유형의 다양화·대규모 지진 발생·빈도 증가 추세
 - 총 재난수 : 총 1,150건 중 882건 '07~'16년 사이 발생
 - 지진 발생 추이 : ('80년대) 16회→('90년대) 26회 →('00년대) 44회

-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·추진
- 방재기반 강화 및 대비 체계 구축

국민 불편 해소

-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의 체감 만족도 미흡
 - 전문가평가(사적 분야) : '14년 731점 '15년 739점 '16년 74점
- 매장문화재 조사 증가에 따른 부실·과잉조사 우려 대두

- 만족도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노력 지속
- 매장문화재 조사검증 강화 등 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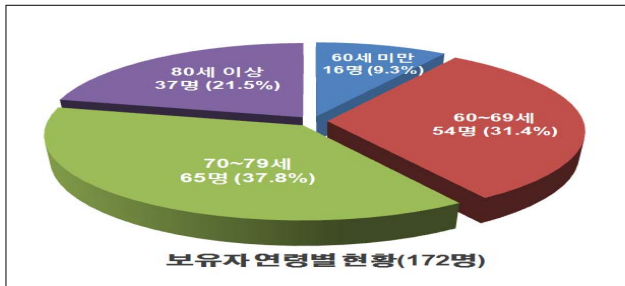
근·현대 문화유산 보호

- 근·현대 문화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확산
- 근·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제도 미비
 - 50년 미만 근·현대 문화유산 등록관리 건수 : 33건 4.9%(등록문화재 총 677건)

-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있는 근·현대 문화유산 보호체계 강화
-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으로 보호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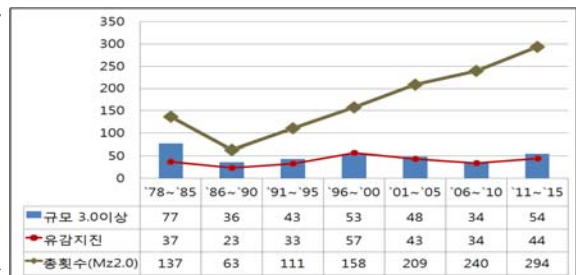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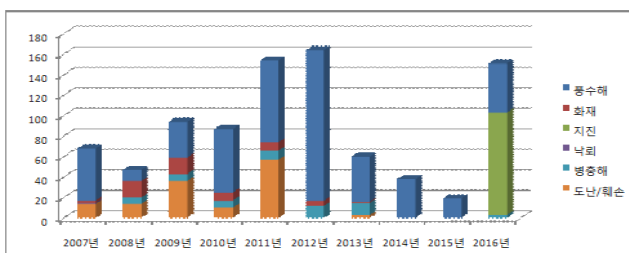
□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재 보호체계 필요

- 1962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근간으로 한 현 문화재 지정·분류체계는 시대 변화와 미래문화재 수요에 대응하여 개선 방향 마련 필요 *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중장기 개선
- 전승자 고령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체계 필요
 - 전수교육의 주체인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고령화로 인한 전승단절 우려
 - * 평균연령 (보유자71.5세, 전수교육조교 62.1세), 70세 이상(보유자 59.3% 전수교육조교 23.8%)
 - 명예보유자 제도 활성화 등 전승자 순환 강화를 통한 젊은 전승자 확충 및 사기 진작, 전승자·공간·공동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



□ 문화재 재난 유형 다양화·대규모화에 체계적 대응 요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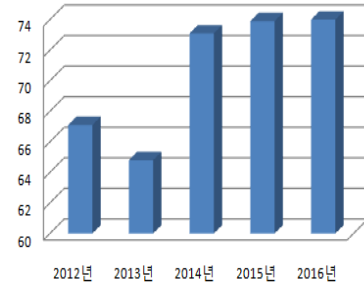
- 그 동안 문화재 방재 정책은 화재 및 풍수해 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, 최근 재난 유형의 다양화(지진 기후변화 등)·대규모화·빈도 증가 추세
 - * 총 재난 수 : 총 1,150건 중 882건이 2007~2016년 사이에 발생
 - * 지진 발생 추이 : ('80년대) 16회 → ('90년대) 26회 → ('00년대) 44회
- 새롭게 문화재 보호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, 방재기반 강화 및 대비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수립·추진 필요



□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 문화재 보존관리 요구 지속

-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규제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

* 전문가 평가 (사적 분야) : '14년 73.1점 '15년 73.9점 '16년 74점
 * (규제 합리화 노력) 유형별 경관검토 기준 마련 허용기준 재조정 (300건),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등



사적 분야 전문가 평가(점수)

-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소 필요

- 매장문화재 조사 증가에 따른 부실·과잉조사 우려 대두로 제도 개선 요구 증대 및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비용 확대 요구 부응 필요

* 발굴조사 현황 : ('12년) 1,510건 → ('14년) 1,851건 → ('16년) 2,100건

* 지원현황 : ('12년) 65억 → ('13년) 65억 → ('14년) 125억 → ('15년) 95억 → ('16년) 109억

□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근·현대 문화유산 보호체계 필요

- 근·현대 문화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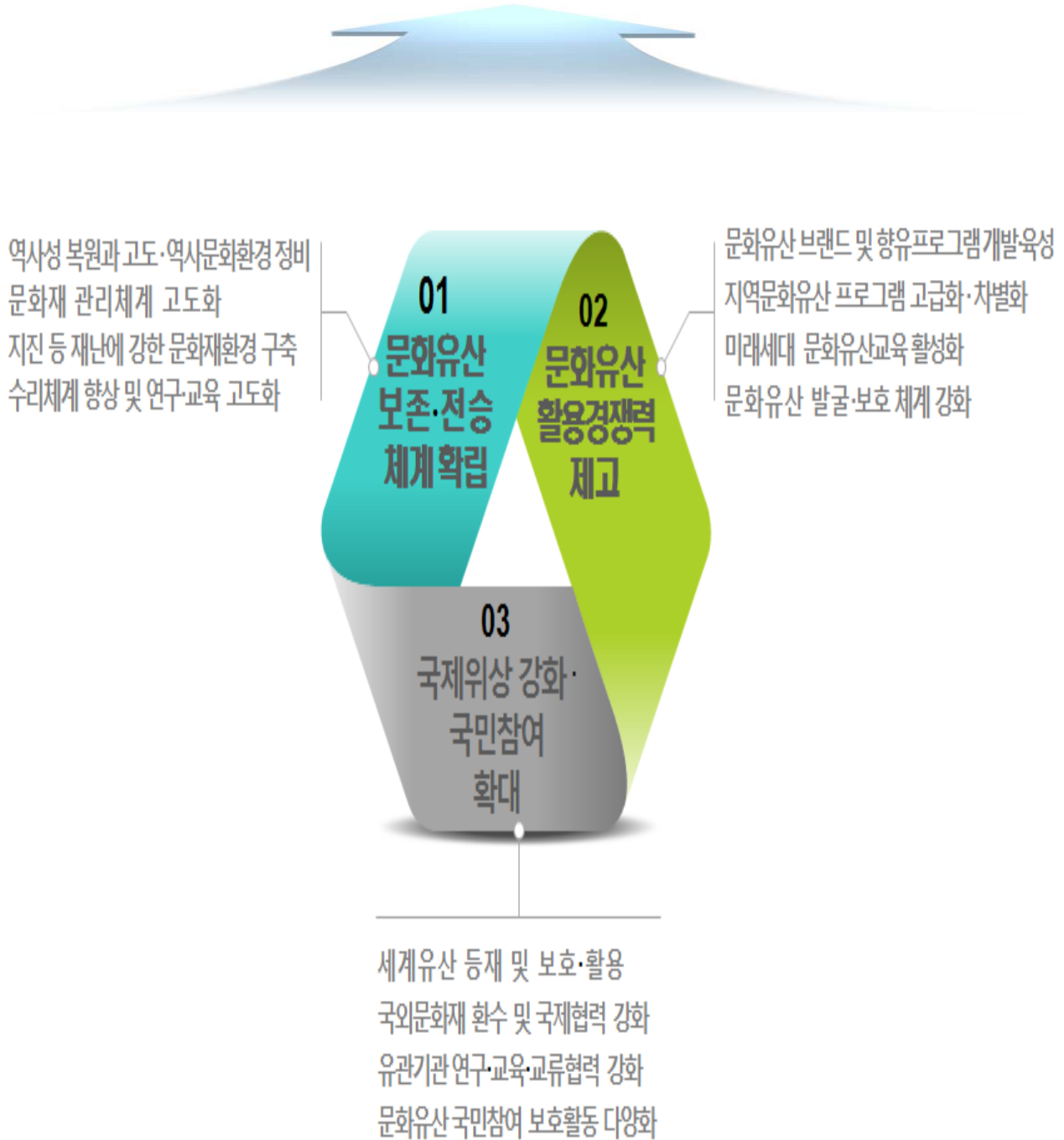
- 유·무형의 근·현대 문화자원 발굴·보존관리가 지역재생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나 근·현대 문화자원 보존관리제도 미비

* 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유산 등록관리 건수 : 33건 4.9%(등록문화재 총 677건)

<p>국내 사례</p>	<p>·대구 근대골목투어 : 2008년 시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 중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, 체험프로그램 - 방문객: '08년 287명→'15년 1,145,101명(3,990배 증가) - 지역문화브랜드 상('13년), 한국관광의 별 K-스마일부문 수상('15년) 등 수상 	
<p>해외 사례</p>	<p>·영국 테이트모던 : 2000년 시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템즈강변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편 - 연간 약 9천만 파운드(약 1,300억원)의 경제효과와 4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	

Ⅲ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 구현



중점과제 1 문화유산 보존·전승체계 확립

성과목표1-1 역사성 복원과 고도·역사문화환경 정비

변형·훼손된 궁능 문화유산 복원·정비 • 변형·훼손 궁궐문화재 복원·정비 • 조선왕릉 능제 복원·정비	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 육성 • 백제·신라 핵심유적 정비·복원 • 고도 보존육성 법령 정비	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조성 • 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확대 • 역사문화환경 유해성 기준 마련
--	---	--

□ 변형·훼손된 궁능 문화유산 복원·정비

● 일제강점기 변형·훼손된 궁궐문화재 복원·정비로 민족자긍심 고취

- 덕수궁 복원·정비(근대역사의 위상 재정립/’15~’39년 560억원)

* 고종의길 복원(16~17년 25억원), 돈덕전 발굴조사(17년 3.4억원) 및 복원 설계(17~18년 3억원)

- 사직단 복원·정비(’15~’27년)

* 사직단 전사청권역 등 복원 설계
부대시설 정비(’16~’18년 24억원)



<사직단 핵심영역 현황>



<사직단 핵심영역 복원 조감도>

- 경복궁 흥복전 3차 복원공사(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/’15~’18년 180억원, ’17년 48억원)

* 광화문 현판 재제작을 위한 과학적 분석(’17.3~12월 0.8억원)

● 조선왕릉 능제 복원·정비

- 영·영릉(英·寧陵) 능제 복원·정비 2단계(’17~’19년 152억원), 조선왕릉 수복방 및 수라칭 복원(9.7억원), 태릉 권역 내 사유건물 2동 강제 철거(행정대집행)

□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(古都) 육성

● 고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백제·신라 핵심유적 정비·복원

- ‘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’ 유적별 세부시행계획 수립(10월), 백제왕도 전담 조직 마련(추진단 출범, 20명 이내), 정비·보수 확대·시행(215억원)

- 신라 월성(발굴조사, 해자 실시설계 및 착공, 발굴홍보관 건립), 동궁과 월지(단계적 복원공사, 전통조경), 황룡사(중문·담장 발굴 및 기본설계) 정비·복원

● ‘경미한 행위’ 등 고도 보존육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

* 심의 절차 없이 즉시 처분 가능한 ‘경미한 행위’ 내용 구체화(고도육성법 시행령, 5월)

□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조성

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확대

- 조정 대상 문화재 총1,046개(’15~’16년 360여개 완료) 중 민원 많은 1천개 조정 목표(~’18년)

●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, 소음, 빛 등 유해성 요소에 대한 기준 마련

* 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의 경제적 가치 및 효용성 평가’ 병행

성과목표1-2

문화재 관리체계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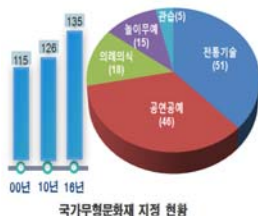
문화재 정책연구 및 위원회 정비	무형문화재 맞춤형 관리·지원	문화재 유형별 관리 체계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재 분류·지정체계 개선 문화재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맞춤형 관리 및 인정·지원 개선 전승자 자긍심 고취 정책 확대 신규종목 발굴·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보·보물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강화 사적 유형별 지정기준 등 마련

□ 문화재 증장기 정책 연구 및 문화재위원회 정비

- 문화재 분류·지정체계 증장기 개선(2차년도) * 분류·지정체계 개선 세부 후속 연구(3월~11월)
- 문화재위원회 운영 제도 합리적 개선
 -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해촉기준 명확화, 위원의 제척·기피 보완 등

□ 무형문화재 맞춤형 관리·지원체계 마련

- 맞춤형 관리체계 연구(12월, 1억원) 및 인정·지원제도 개선 등
 - * 활성화종목, 취약종목, 긴급보호종목 등으로 분류 후 이에 따른 전승자 인정·지원 차별화
 - * 공동체성 종목, 개인종목 등 별도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
-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확대
 - 고령의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활성화,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 지원 강화
 - 인간문화재 「명예의 전당」 조성(12월, 12억원/전승자의 삶 소개, 헌정기념 전사·강연 등)



● 신규종목 발굴·지원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보육체계 구축

- * 전통지식·구전·전통 등 신규지정종목 선정(17.1월)·조사 추진(연중), '보유자(보유단체) 없는 종목' 관리방안 수립
- *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보호·육성 매뉴얼 등 보육시스템 마련(6월)

□ 문화재 유형별 관리 체계화

- 국보·보물의 지정 기준,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 정비
 - * 미술전적문화재 정의·범주·지정기준, 검증절차(취득경위, 도난여부) 등 조사·운영·심의 규정 제정
-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강화
 - * 천연기념물(동물) 상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('17년~'18년), 서식지·번식지·도래지 생태 모니터링('17년, 2.8억원), 동물 수입종의 천연기념물 인정기준 마련
- 사적 유형별 지정기준 및 보존관리 원칙(지침) 마련(11월)
 - * 성곽 등 유형별 지정현황, 보존·관리·활용 현황분석, 국내 및 국제 사례 비교분석

성과목표1-3

지진 등 재난에 강한 문화재환경 구축

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	재난·방재 법·제도적 기반 강화	새로운 방재기술 개발·활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도개선·교육으로 대응력 강화 • 방재 실험연구동 구축 등 • 내진성능 평가 프로세스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재 법령 정비 및 설비별 방재기준 마련 • 방재 선진국 협력체계 강화 • 돌봄사업 안정화 및 예방체계 확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재 방재앱 활용 안전관리 • 사물인터넷 방재기술 도입

□ 대규모 지진 재난에 대비한 ‘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’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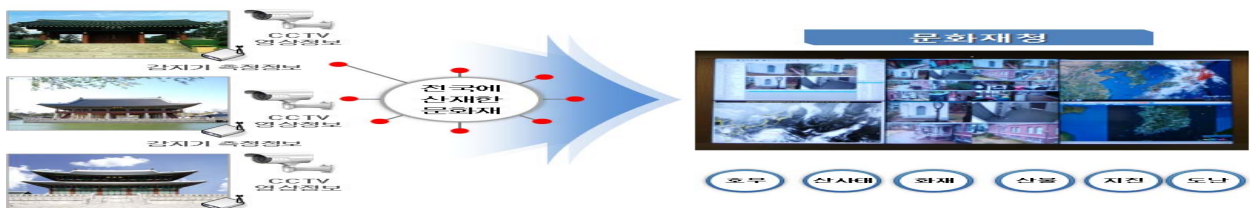
- 지진대응매뉴얼 개선 및 민속마을 주민교육 등을 통한 대응력 강화
- 지진 등 방재기반강화를 위한 실험연구동 구축, 재해예방기술 연구 실시 및 2차 피해방지 대비체계 구축
 - * 구조안정성 시험연구동 구축(‘16년~’17년, 20.6억), 건축문화재 실물 실험 실시
 - * 지진-화재 등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노후전기시설 교체 지속 실시
- 건조물 문화재 유형별(목조, 석조) 내진성능 평가 프로세스 구축 (3월~12월, 2억)
 - 소유자·관리자에 의한 기초진단에서 구조전문가에 의한 평가기준까지 마련

□ 문화재 재난·방재 고도화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조성

- 방재 법령 정비 및 방재설비 유형별 기준 마련
 - * 재난대응매뉴얼 강화 신고보고 의무화 등 법령 개정 / 문화재 파괴설비 및 전가방법설비 설치유지관리 기준 정비
- 재난 복잡화·대형화에 대비한 방재 선진국 협력체계 강화
 - * 방재 국제심포지엄(6월), 대규모 재난 대비 제도기술 전문가워크숍(10월), 이탈리아일본 등 선진사례 조사연구
 - *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리츠메이칸대학 간 문화재방재 공동연구를 위한 MOU추진
- 돌봄사업 안정화 및 예방체계 확립 (돌봄단체 특수법인화, 모니터링·보수정비 유기적 연계 강화)

□ 첨단기술 활용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

- “문화재 방재앱” 활용 안전관리 강화
 - 17년 하반기 전국 확대(서울 흥인지문 등 148개소)
 - 현장 재난정보 수집, 평시 점검 및 비상시 긴급신고 등에 활용
-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기술 도입
 - ‘나홀로 문화재’, 고분 등 방범 취약 문화재 감시 활용



<IoT(사물인터넷기술)를 활용한 문화재방재 기술(개념도)>

성과목표1-4

수리체계 향상 및 연구·교육 고도화

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수리체계 강화 • 문화재수리 기본계획 수립 • 수리공사 품질제고 제도개선 • 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·운영	맞춤형 연구 기반 구축·확대 • 과학적 보존복원연구 강화 • 전통재료·기술 품질기준 마련 등	문화재 실무 융합형 특성화 교육 강화 • 실습 및 현장중심, 전승연계 교육 강화 • 기능자 양성,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
---	--	---

☐ 수리품질의 지속 향상을 위한 수리체계 강화

- 제2차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(19년~23년)」 수립 (문화재 수리 분석과 정책방향)
-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 - * '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세부기준안'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기준 마련
 - *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(수리법 개정, '17년 국회 제출)
- 「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」 설립·운영
 - 전통건축 부재(部材)와 재료 등 수집·보존(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, '17.6월 완공, 파주)

☐ 현장 맞춤형 문화재 연구 기반 구축 및 확대

- 문화재 과학적 분석DB 구축, 출토유물 분석시료 체계적 보존관리
 - 분석데이터 25,000건 목록화 및 DB구축, 고인골 및 출토유물분석센터 건립 ('17년, 8억원)
- 전통재료·기술 품질기준 마련, 기능개선 연구·개발 확대
 - 단청안료('14년~'20년), 전통한지 및 석회 등 건축재료('17년~'21년)

☐ 문화재 실무 융합형 특성화 대학 교육 강화

- 현장중심 실기·실습 교육 및 전승활동 연계 융합교육 강화
 - 실기·실습 교과목 비율 확대('16년 49%→'17년 68%)
 - 무형문화재 등 전문가 강의 및 전승활동 연계 융합교육 실시
 - *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참여(38교과목), 위촉(12종목) 및 전수교육대학 시범운영(4종목)
-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 및 수리종사자 교육 확대
 - 수리기능자 융·복합역량 배양을 위한 연계종목 협업교육 시스템 구축(총 21개 종목)
 - * 소목(가구)+옷칠+철물(장식), 소목(창호)+철물(대장간), 옷칠+도금 등
 - 수리종사자(기술자, 감리원) 보수교육 실시('16년 4회→'17년 7회)

중점과제 2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

성과목표2-1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및 향유프로그램 개발·육성

대한제국 선포 기념 프로그램	고궁 왕릉 체험·스토리 프로그램	국민 향유프로그램의 지속 보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제국 선포 역사문화 가치 확산 달빛기행·야간관람 상설·고급화 고궁음악회 상설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궁중음식체험 프로그램 개발·확대 궁궐 일상체험프로그램 신규 개발 궁궐 전사·체험 및 왕릉 개방 다양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형문화재대전 등 무형유산 축제 왕실 프로그램 고급화 및 유물 개방 해양프로그램 확대 보급

□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 등 대표 궁궐활용프로그램 개발·확대

● 대한제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확산 여건 조성

* 대한제국 선포식·즉위식,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, 대한제국 역사관 특별전, 고종의 길 복원기념식 및 현장 공개, 청소년 초청 대한제국 역사현장 순례, 대한제국 역사강좌 등

● 내·외국인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 및 야간특별관람 상설·고급화

* 창덕궁 달빛기행: ('16년) 49일 → ('17년) 100일
 * 고궁야간특별관람 (조명개선 등 고품격관람환경 조성)
 ('16년) 53만명 → ('17년) 60만명 관람 목표

● 고궁음악회 상설 개최로 문화유산 관광 명소화

* '17.3월~10월 상설 운영(18억원/전통음악, 퓨전국악 등)



<궁능 연도별 관람인원 증가>

□ 수요자 중심의 고궁·왕릉 체험·스토리 프로그램 개발·확대

● 궁중음식체험 프로그램 개발·확대(1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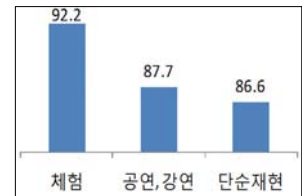
* 대장금과 함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('16년 15일~'17년 30일), 생과방('17년 신규 상설), 사삭공감('16년 축전기간→'17년 축전 및 야간특별관람 기간)

● 궁궐 일상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

* '1750, 시간여행 그날', '내의원 체험' (참여자 공모)

● 궁중생활상 전시·체험 프로그램 확대('17.3월~12월/26억원) 및 조선왕릉 개방 다양화

* 전각 개방 궁중생활문화 전사체험('16년 2개→'17년 4개), 경복궁 집옥재 도서관, 종묘 제수진설 체험 등
 * 파주 장릉 시범 개방, 세종대왕역사전시관 개관(5월) 및 조선왕릉 들꽃길 단지 조성(1억원)



<'15년 궁궐프로그램 만족도>

□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지속 보급

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진수를 보여주는 무형유산 축제

* '17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 확대 (10월 2억원/공예품전시+기예능 축제), 굿보라기(4월/심청전) 향거리 페스티벌 참여

● 왕실 프로그램 고급화 및 유물 개방 확대

* '수라간 최고상궁', '왕실 태교', 온라인 왕실문화 인문강좌, 고궁박물관 소장품 사진 무료 개방(연500건)

● 해양프로그램 보급으로 해양문화유산 관심 증대

* 신안선 출항 700주년 기념행사,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순회전시('신안선과 그 보물들'/3월~5월)

성과목표2-2

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고급화·차별화 확산

지역문화유산 활용 거점 강화	인문정신 함양 프로그램	지역경쟁력 확보위한 문화유산 환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문화유산 활용 성공 패러다임 모색 보전재산 등을 통한 지역문화자산화 「올해의 무형유산도시」 공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살아 숨쉬는 향교·서원 프로그램 전통산사 활용프로그램 생생문화재사업 확대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력적인 고도역사문화환경 조성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재활용시범사업 이야기 원천자원 지속 개발

□ 지역별 문화유산 활용 거점 활성화로 지역문화유산 가치 제고



<피란수도 부산야행 지도>

- 지역문화유산 활용의 성공 패러다임 모색(단일 문화재 일회성→ 집적 문화재·주변시설 연계, 정례적 행사)
 - 부산 '피란수도 부산야행, 군산 '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등 문화재 야행(夜行) 프로그램 확대(18개/90억원)
 - * ('16년) 9개 사도 10개 사업 관람객 100만명 → ('17년) 13개 사도 18개 사업 관람객 150만명 목표

- 지역문화유산 여행과 연계한 활용프로그램 개발·운영

- * 지역문화유산 관광열차 프로그램(15개소), 경북궁 별빛야행, 창덕궁 달빛기행 등
- * (문화재청)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, (여행사)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

● 국민신탁 보전재산 등 문화시설 활용(전시관·숙박 등)을 통한 지역문화자산화

- 舊 보성여관(남도 근대문화체험),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(비수기 도서 주민 문화커뮤니티) 등

● 「올해의 무형유산도시」 공모 (지역무형유산 목록화, 홍보영상 제작, 기록화/1.8억원)

□ 향교·서원·산사 등 활용프로그램을 통한 인문정신 함양

- '살아 숨쉬는 향교·서원 프로그램' 확대 (선비문화체험·전통예절교육 등)
 - * ('16년) 77개소 44억원 → ('17년) 87개소 56억원
- '전통산사 활용프로그램' 신규 운영 (25개 인문·호국정신 함양프로그램/20억원)
- '생생 문화재사업' 확대 운영(17개 지자체, 120개 관광·교육·체험 사업)
 - * ('16년) 88건 51억원 → ('17년) 120건 70억원

□ 지역 경쟁력이 확보되는 문화유산 환경 조성

● 매력적인 고도(古都) 조성

- 차별적 지원 등을 통한 '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' 내실화

- * 활성화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원 중대규모 시설 '이미지 찾기 공모사업' 신규 추진(건당 5억원 이내)
- * 경관 창출 효과가 큰 상가 등 가로변 건축 외관정비 지원

- '고도 세계유산 팸투어' 확대 ('16년 4회→'17년 6회)

- * 팸투어 대상 다양화(여행작가, 駐韓외교사절 등), 다양한 방문코스 연계(지역 맛집, 게스트하우스 등)

● 평창동계올림픽('18년)의 성공 기원을 위한 문화재활용사업 확대·중점 실시(7개 사업/28억원)

● 민간 창작소재 제공을 위한 '이야기 원천자원' 지속 개발 ('17년 민속문화재→'18년 보물)

성과목표2-3

미래세대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

문화유산 학교교육 기반 조성	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	디지털 영상콘텐츠 활용 교육
• 문화유산교육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	• 체험활동 중심 교육프로그램	• 문화유산 인기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
• 중학교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	• 세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	•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·보급

□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부응한 문화유산 학교교육 기반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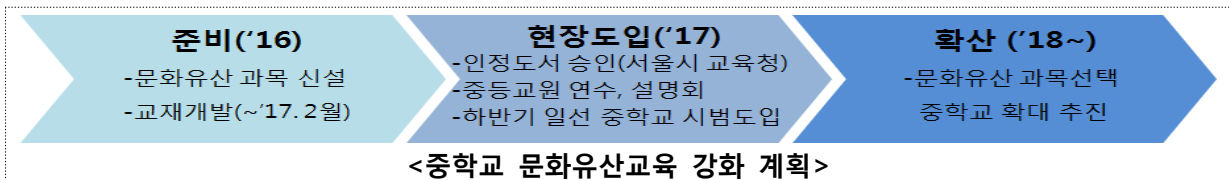
● 문화유산교육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

- 「문화유산교육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가칭) 제정 추진
- 문화유산 전문교육인력 육성

* 중등교원 대상 문화유산 교육과정 개설(5일 2회), 자유학기제 파견강사 전문 인력풀 운영(100여명)

● 중학교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·보급

* 문화유산 과목 신설 및 중학교용 인정도서(교재) 개발('16년~'17.2월), 인정도서 승인 및 중학교 시범도입('17년)



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유산 교육의 흥미 배가

● 체험활동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확대

- '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' 참여기회 확대

* ('16년) 중학생 대상 4회 150여명 → ('17년) 청소년·소외계층교사 등 대상 확대 30회 1,000여명

- '문화유산 방문교육', '고고학체험교실' 지속 추진

● 고객 세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
- 초·중·고생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강화

* 초등학교생 : 주니어 도슨트 '도전! 마린해설사', 문화유산 강좌(연 3~4회 100여명) / 중학생 : '꿈틀꿈틀 마린스쿨(8회/자유학기제 연계), 전통문화 진로탐색(연30회 400여명) / 고등학생 : '하이틴 마린스쿨(5회), 문화유산 진로탐색 강좌(연1~2회 50여명)

- 대학생·일반인 대상 문화유산교육 저변 확대

* 대학생 : 전통공예 워크숍(연1~2회 50여명)/일반인 : 해양문화강좌 '제26기 바다문화학교' 운영(10회)

□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지속 실시

● 문화유산 인기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문화유산채널 개편

* 미공개 보존발굴 현장 등 새로운 소재의 TV 프로그램('생방송 문화재 경연 쇼') 등 발굴

* 소통형 '문화유산채널' 운영 (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실시간 반영)

● 고품격 디지털 콘텐츠 제작·보급

* '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' 콘텐츠 제작·활용, 문화유산 여행길 등 문화재 활용 콘텐츠 EBS공동제작

성과목표2-4

문화유산 발굴·보호체계 강화

근·현대시기 문화유산 보호체계	매장 및 해양문화재 보호	테마별·비지정 문화자원 개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·현대시기 문화유산 보호제도 도입 •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• 등록문화재 확대 및 근대유산 체계적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장문화재 조사지원·검증강화 • 해양문화유산 지식자원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테마별 사적 발굴·지정 추진 •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·보존 강화

□ 근·현대시기 문화유산 보호체계 강화

● 근·현대시기 문화유산 보호제도 도입 추진(17년~)

- * 건설·제작·형성된 지 50년 미경과 문화재 대상
- * 「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」 개정 추진



2010년 밴쿠버올림픽
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
<50년 미경과 등록문화재
선정대상(예시)>



'74.8.15. 수도권 전철
개통 시 사용 전동차

● 지역별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도등록문화재제도 도입(17년 *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추진

●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범위 확대 및 근대 문화유산 체계적 조사 실시

- * 등록문화재 점단위→상호 연계성 있는 면단위(개별 동산·부동산→건축시설물군)로 등록대상 확대
- * 연차 계획에 따라 근대 문화유산 조사 : (17년)교육문화예술인 관련 시설(건축시설분야), 사진놀이문화(동산분야)

□ 조사 지원 강화로 매장 및 해양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

● 매장문화재의 조사지원 및 조사 검증 강화

- 매장문화재 지표·발굴조사 등 지원 확대

- * 소규모 발굴조사(327건, 121억원), 민간지표조사(230건, 7억원), 수해·도굴 등 긴급발굴(20건, 15억원)

- 매장문화재 조사 전반의 검증 강화

- * 지표조사 결과 전문가 검토시스템 구축·운영(보존조치 내용, 범위 등), 지표발굴조사 검증시스템 운영(시대, 유적분포 등 일치성 여부 분석 1,382건), 발굴조사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보고서 공개

-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

- *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, 발굴조사 현장 모니터링

● 해양문화유산 지식자원의 체계적 확보

- * 유물 발견 신고해역(전남, 경남 등 36건) 집중탐사·유물집중매장처 확인
- *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, 영광 낙월도 해역 정밀조사
- * 해전 유적지(옥포, 노량해전 등 21개소) 1차년(총 5개년) 조사

□ 테마별·비지정 문화재 개발로 풍부한 문화유산자원 확보

● 테마별 사적 발굴·지정 추진(지자체 공모)

- (서원·사우) 한국정신문화 토대인 서원·사우 가치 재평가 및 관련 유적 지정 추진

- (호국인물) 임진왜란·병자호란 등 호국인물 발굴 및 관련 유적 지정 추진

- * 1차 선발된 서원·사우(9건) 및 호국인물유적(7건)을 지정 추진

●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·보존 강화

- * 폐사지 조사(충남 등 350여개소, 9억원), 비지정 고분군 연차별 조사('16년~'20년, 4,076개소)
- * 봉수유적(20개소), 폐사지(6개소), 일출·낙조 명소 등 지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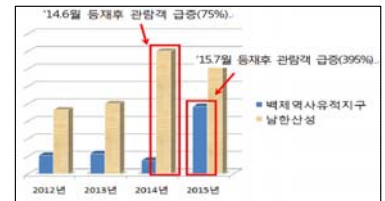
중점과제 3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

성과목표3-1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·활용

세계유산 지속 발굴 및 등재 확대	세계유산 보존·관리 체계화	세계유산 활용·홍보 활성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」 개최 세계유산 발굴·등재 활동 강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계유산 보존·관리 일원화·구체화 세계유산 상시모니터링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회의 계기 지속적 해외홍보 세계유산 활용·홍보 지원 확대

□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지속 및 국제 활동 강화

- 「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」 개최로 국제위상 강화(17.12월/14.6억원)
 - * 2011년 이후 아시아지역 최초 개최(제주 /170여개 협약국 대표단 및 전문가 등 1200여명)
- 세계유산 발굴 및 지속 등재 활동 강화
 - * (세계유산) '한양도성 등재결정'(17.7월), '한국의 전통산사 등재신청서 제출'(17.1월)
 - (세계기록유산) '조선왕실 어보와 아책, '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재 결정'(17.10월)
 - * 세계유산위원회(부의장국) 등 정부 간 위원회 활동 전개 및 유네스코 활동가 양성



<세계유산 등재 후 관람객 증가>

-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강화로 차기 등재 후보 경쟁력 확보(서남해안 갯벌 등 4개 유산/5.6억원)

□ 세계유산 보존·관리 체계화

- 세계유산 보존·관리 일원화·구체화로 효율성 제고
 - 문화재보호법, 고도법 등에 분산된 법적근거 일원화·구체화
 - 세계유산 보존·관리 기능 확대 개편 추진
 - *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(16.11월, 의원입법)
-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및 민간참여 확대
 - * 매년 모니터링 실시 → 세계유산센터 정기보고(6년 마다) → 개선계획 마련·시행
 - *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동에 유학생, 외교사절 등 네트워크 → 국내외 세계유산지킴이 연계

□ 세계유산 활용·홍보 활성화

- 정부간위원회 등 국제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세계유산 해외 홍보
 - *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(7월),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의 한국대표단 부대행사 등
- 세계유산 활용·홍보 지원 확대로 대중 인식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(국비 12억원→32억원)
 - 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활용 프로그램 지원
 - * (세계유산)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활용프로그램 등 8개 세계유산 활용·홍보 프로그램
 - * (기록유산) '유교책판' 관련 한국국학진흥원 수장 및 활용시설 건립

성과목표3-2

국외문화재 환수 및 국제협력 강화

국외문화재 환수·조사·활용 강화	국제사회 기여도 및 정책수준 향상	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태·출처·유통조사 지속 추진 • 협력 다양화 및 제도 개선 • 현지 활용 지원 확대로 홍보 효과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유산 ODA 등 협력국 지원 확대 • 세계 무형유산기관 네트워크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 문화재 남북 공동조사 • DMZ 내 철원 궁예도성 학술조사 • 북한문화재 현황조사 및 콘텐츠 제작

□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사·활용 강화

● 실태·출처·유통조사 지속 추진으로 환수 기반 마련

* (실태조사)유럽미국 주요박물관(7억원/독일 린덴박물관 등 7천여점), (출처조사)국내문헌 중심에서 외국기관 소장이력 조사로 확대(1억원), (유통조사)온라인 경매소(19개국 330여개소) 상시 모니터링 확대(0.5억원)

● 국제·민관 협력 다양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전략적 환수 추진

- 국내 환수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일본 현지 민간단체 협력망 구축(2억원)
- 한·미 수사공조 및 불교계 협력강화로 불법반출문화재 환수 지속 추진
- 국외문화재 구입 확대 및 국내 활용 제고(20억원)

● 국외문화재 현지 활용 지원 확대로 홍보 효과 증대

- '주미대한제국공사관' 박물관 개관·운영(개관식·문화행사, 12억원)
- 국외문화재 소장기관의 유물 보존처리·활용사업 지원(4억원)

□ 국제협력 지속으로 국제사회 기여도 및 정책수준 향상

● 문화유산 ODA 등을 통한 협력국 지원 확대

- 협력국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(수장고 신축·보존처리장비 지원 등, 8억원)
- 세계유산 보존·복원 지원(라오스 미안파/11억원), 세계기록유산 등 등재역량 강화(2억원)
- 국제기구 분담금 출연 확대(11억원) 및 국제협약(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 협약) 가입 추진

● 세계 무형유산기관 네트워크 구축

- 美 스미스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, 日 도쿄국립극장 등

□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토대 마련

● 개성 고려궁성(만월대) 등 북한 문화재 남북 공동조사 추진

*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우선 추진 예정

● DMZ 내 철원 궁예도성 남북공동 학술조사 추진(유엔사·국방부 협조)

● 북한문화재 현황자료 조사 및 콘텐츠 제작

* 북한문화재 현황자료 조사·DB 구축 및 개성 고려궁성 3D 콘텐츠 제작(만월대 주요전각 등)

성과목표3-3 유관기관 연구·교육·교류 협력 강화

국내외 협력을 통한 연구·교육 역량 강화	천연기념물 보존 협업	창의적 전승활성화 협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융복합 조사연구 • 고대문화 복원 연구 네트워크 구축 • 기술이전교육 및 전문연수 프로그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 유전자원 보존협업 • 식물 유전자원 연구 강화 • 식물 상시관리개선 아카데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승자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 • 한민족 주거생활 문화체험 공간 조성

□ 국내외 협력을 통한 연구·교육 역량 강화

●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융·복합 조사·연구

- 수증문화재 조사 및 탐사기술 연구개발 협업

* 수증로봇 조사기술 개발(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), 해저 탐사기술개발(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)

-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·복원 연구개발 선도

* 전통한지 품질기준(국가기술표준원, 한지산업지원센터 등), 제작공정(무형문화재)

* 생물다양성 조사연구(국립중앙과학관 등 6개 기관, GBIF 국제정보 공유)

● 고대문화 복원 연구 네트워크 구축

* ICAS(중앙아시아 학술연구기구) 회원국 활동, 실�크로드 연구에 한국 중요성 부각

* 적석계 무덤 매장문화에 관한 중앙아시아 공동조사연구(카자흐스탄 등 3국)

● 협력국 기술이전 및 전문연수·교류 프로그램 운영

* 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(태국), ACPCS(문화재보존과학 국제연수)

* 유네스코 석좌대학(한국전통문화대학교) 지정 '문화유산 국제훈련 프로그램' 운영

*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(IED) 및 국립로마복원학교(ISCR) 교류

□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협업

● 동물 유전자원 보존 협업(국립축산과학원, 제주도)

- 구제역, AI 등 유사시 멸실 대비책으로 생식세포 보존 협업 추진

● 식물 유전자원 연구 강화(국립산림과학원)

- 천연기념물 식물 화분 저장(3건), 유전자 보존 및 후계목 육성(13건)

●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개선 아카데미 개최('17년 시범실시)

- 문화재수리기술자(나무병원), 지자체, 청, 학계 간 유기적 협력 및 소통의 장 마련

* '17년 실시결과에 따라 향후 동물, 지질 등 자연유산 분야 전반으로 확대 추진

□ 지자체·국공립단체 협력으로 문화유산의 창의적 전승 활성화

● 「창의공방」 전승자·현대공예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류 (국립무형유산원)

* 경기문화재단,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융·복합 창작역량 제고 협력

* 「창의공방」 창작활동 프로세스 체계화로 창작역량 강화(2억원)

● 한민족 주거생활 문화체험 공간 조성 * 세종시 조성 '한문화단지' 마스터플랜('16.11월) 반영

- 우리 민족 고유의 주거공간 재현, 의식주사상 등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

성과목표3-4

문화유산 국민 참여 보호활동 다양화

문화재지킴이 능력 저변 확대	후원 지킴이 네트워크 강화	국민 참여행사·홍보 다양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킴이 사업별 프로그램 지원 • 자발적 진단·점검 및 역량강화 체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원 협약기관과 파트너십 지속 • 맞춤형 민관협력 및 다자간 협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연기념물 어류·겨울철새 보호행사 • 문화유산보호 국민참여 활동 강화

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재지킴이 능력 저변 확대

● 문화재지킴이 사업별 프로그램 강화

- * 초·중·고생 '청소년 문화재지킴이', 대학생 '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' 지원
- *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(상·하반기 각1회),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(연1회)

●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자발적 진단·점검 및 역량강화 체계 도입

- * 지킴이 위촉신청만 가능 → 종합정보 제공으로 지킴이 활동의 자발적 동기 및 자긍심 고취

□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원 지킴이 네트워크 강화

● 기업 등 후원 협약기관과의 파트너십 지속

- 문화재지킴이 신규협약·후원약정(5건), 후원규모(35억원 → 40억원), 정기협의회 지속(4회)
- 지킴이활동(봉사·후원) 홍보 지원 및 지킴이활동 포상 지속 추진
- * 문화유산·봉사활동 등 현장교육 지원, 보도자료·SNS·인터뷰 등 청·홍보매체 적극 활용

● 맞춤형 지킴이 민관협력 및 다자간 협력 활성화 추진

- 지킴이활동 우수협약기관 협력강화 및 기업 사회공헌 비전과 연계한 맞춤형 민관협력
- 기업 후원·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
- * 협력 초기단계 공동 참여지원 시스템 마련 국민신탁지킴이연합회 등 민간단체에 기업 후원협력 활성화 유도

□ 국민 참여행사·홍보 다양화로 문화유산 보호 자긍심 고취

● 천연기념물 어류 및 겨울철새 보호행사

- * 증식·복원한 천연기념물 어류(미호종개, 어름치) 방사행사(2회),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 및 조류 특별전시회



<독수리 먹이주기 행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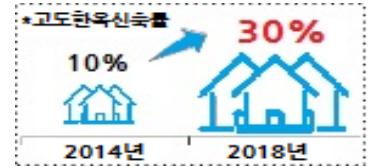
● 문화유산보호 국민참여 활동 강화

- '우리 문화유산 알리미'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
- * 대학교 역사동아리와 연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 참여 홍보 및 멘토단 육성
- 문화재지킴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
- * 지킴이단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(20건 → 25건 내외), 지킴이 교육운영 지원(광역지자체별 1개 단체)

IV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

□ 문화유산 전승·관리 강화, 관리체계 및 안전 대응력 고도화

- 고도·역사문화환경의 주민 친밀도 증대 및 수용성 제고
 - 한옥이 어우러진 고도경관 팸투어, 주변과 조화로운 역사 문화환경 등 → 지역 명소화·활성화



-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 체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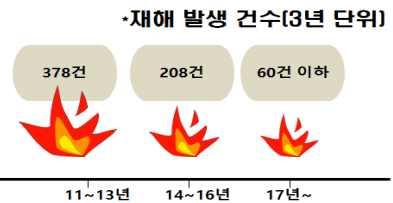
- 전승자 확충과 전승제도 개편에 따른 전승 기반 강화로 무형문화재 후대 계승 안정화

* '12년 5,114명 → '18년 7,000명

-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유산

-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확충으로 각종 재해 (화재, 지진, 풍수해 등)의 방재 및 초기대응력 확보

* ('14년~'16년) 208건→('17년~'19년) 평균 10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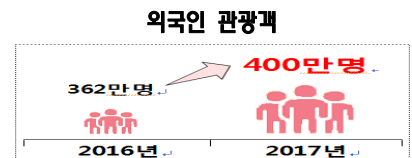


□ 고궁의 세계적 관광자원화 및 지역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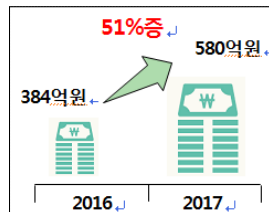
- 궁·능을 내·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로 정착

- 단순 관광 위주 → 역사문화관광 중시 경향

* '궁중문화축전' 등 고궁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 관람객 400만명 시대 진입



[지역규모]



[경제적 파급효과]

- 지역문화유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-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경제 파급효과 ('16년) 384억원 → ('17년) 580억원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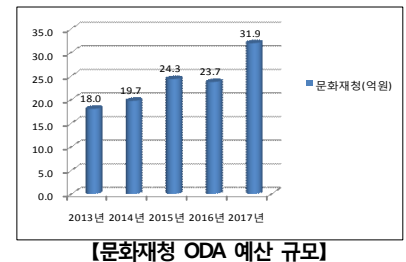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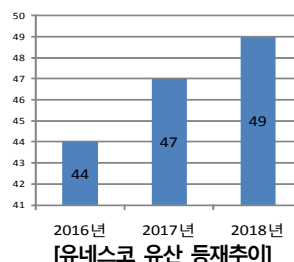
*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투입 예산 '21년까지 단계적 확대 (수도권 투입 예산 대비 5배)

□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국제협력 내실화

-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통한 문화국가 위상 강화

* '16년 44건 → '18년 49건

- 국제 ODA 등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강화('16년 24억원 → '17년 32억원)



1. 임 무 :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

2. 조 직 : 차관청('04.3월), 정원 928명 (1관 3국 19과 2팀 15소속기관)

3. 문화재관리 재정

(단위: 억원)

구 분	'14년 예산	'15년 예산	'16년 예산	'17년 예산	비 고
계	6,199	6,887	7,311	7,891	
일반회계	5,072	5,700	6,111	6,447	
지특회계	98	134	147	222	
문화재보호기금	1,029	1,053	1,053	1,222	'10년 도입

4. 문화재현황 : 총 13,042건('16. 11. 30. 기준)

○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: 4,554건

- 국보 328건, 보물 2,060건, 사적 495건, 명승 109건, 천연기념물 456건, 국가무형문화재 135종목, 중요민속문화재 294건, 등록문화재 677건

○ 시·도지정문화재 5,839건, 문화재자료 2,649건

♣ 유네스코 등재 유산 44건 : 세계(문화·자연)유산 12건, 세계기록유산 13건, 인류무형유산 19건

5. 소관법령 및 위원회

- 「문화재보호법」(62제정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04제정),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(06제정), 「문화재보호 기금법」(09제정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(10제정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(10제정),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」(11제정)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15제정)
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(62제정)

6. 문화재위원회

- 9개 분과 68명 (겸직 포함 82명/ 전문위원 186명), 임기 2년 ('15.5.1.~'17.4.30.)